

서부아프리카 세네갈 최재운 장순화선교사 열세번째 소식



할렐루야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인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
이 넘치는 새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끝에 위치한 한
반도 크기에 작은 나라입니다. 이 곳은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라서 모래
가 많은 관계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 황사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쌀
쌀한 가을 같은 날씨로 따뜻한 한국의 보일러가 있는 방이 그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
습니다.



사역지 이야기

마갈뚜바(세네갈 최대 이슬람 종파인 뚜바파의 성지순례행사)가 12월 마지막 주에 있
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네 설날이나 한가위의 민족이동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러 시골 성지로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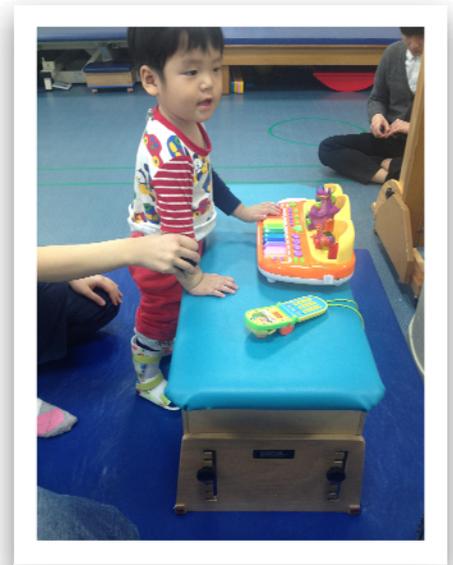
1월2일 감무라고 하여 이슬람 소수종파들의 성지순례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9월에 개학한 사마리아 기술원은 9월, 10월, 11월에 걸쳐 입학 및 신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기술원 새 학기 입학생들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올해는
증가하였습니다. 2,3학년은 줄고 1학년은 작년보다 20,30% 정도 학생들이 증가했습니

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기술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2,3학년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신입생인 1학년이 많아져서 몇 개월이 흐른 지금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기술원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 1,2,3학년 있습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후반 1,2,3학년이 있습니다. 오전반 학생들은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반 학생들은 오후반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오전반과 오후반을 모두 등록하여 매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학년 5,6명 정도입니다. 이 학생들은 루피스크에서 차로 20,30분 떨어진 세비고타 라는 면단위 지역에서 재봉기술을 배우려고 통학 하는 학생들입니다. 등록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기술원은 6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4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4명중 한 명은 지난해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을 인턴으로 하여 신입 교사로 총원하였습니다.

2명의 경비원 중 한 명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오전경비로 수고했던 부부(경비원 이름)가 경비하다 말고 도망가는 일이 잦아서 새로운 경비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6명의 직원들이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고장으로 인터넷 전화기인 070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070-5035-4875

가족 이야기

강민이(둘째인 아들) 는 만 25개월 지났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강민이 물리치료를 해주시는 이 순복선교사님(물리치료사 경력 20년)께서 한국에 나가서 발달체크와 걸지 못하는 강민이의 발모양을 위한 보조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12월 둘째 주에 갑자기 한국행을 준비하여 셋째 주 금요일 비행기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재활학과 교수님을 만나 장애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보조기도 맞추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관계로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세브란스 입원예약을 했고 분당차병원에 5월 한달 입원예약을 하였습니다. 용인에 위치

한 보바스 병원은 6월부터 2,3달 입원 예약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 모두 2월 10일 다시 세네갈에 도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강민이랑 장순화선교사는 3월말 경 다시 한국에 들어가 4,5개월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 치료 및 작업치료 등 집중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강민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강민에게 맞는 치료 선생님과 한국에서 머물 숙소 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민이가 치료 받는 동안 발달에 호전이 보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둑이야기

한국에서 세네갈에 돌아 갈 짐을 싸고 있었던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세네갈에 계신 박모 선교사님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 뒤에는 놀라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지난 밤과 새벽 사이에 도둑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네갈 와서 3번째 도둑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것과 그 집에서만 두 번째 도둑을 맞았다는 것에 힘들어했었습니다.

세네갈 온지 만 3년 동안 3번의 밤손님과 1번의 차안에서 지갑떨이를 당한 저희 가정이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안전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1.에볼라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 2.기술원에 100명이상 학생이 등록할 수 있도록
- 3.언어(프랑스어, 월로프어)의 진보를 위하여
- 4.강민이의 발달이 속히 정상이 될 수 있도록
- 5.강민 치료차 병원(세브란스, 차병원, 보바스위원) 치료를 잘 받을수 있게
- 6.병원근처에 숙소를 얻을수 있도록
- 7.새로운 아파트에 이사 갈수 있게
- 8.온가족의 영적,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도둑으로부터)
- 9.복음의 발인 차량을 위해
- 10.늘 감사하고 낙천적으로 살도록